

63.11.28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 主 田 榮 澤



聖句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 18장3절)

社說

꽃 주일을 맞이 하여

우리는 현대의 인간의 최후의 잔인성에 대하여 거의 절망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우리 사회상이 너머도 추악한 것을 볼때마다 우리사회에 대하여는 거의 낙심하게 되거나 오직 한가지 희망을 부쳐는 것은 어린이들이요 아직 도저들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년에 한번 지키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의미있게 생각 하는 바이다.

우리 교회측에서는 해마다六一儿童节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어린이 중심의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특히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심으로 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한 연중행사로서 습관적으로 지낸다면 아무 의미도 보람도 없을 것이다. 파거리의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어디까지든지 파거리의 부로 (父老)와 어른 본위의 생활을 해왔다. 어린이는 심지어 평시에 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어도 제대로 장례를 갖추지 않고 그럭저럭 묻어 버렸다 이것은 동서양이 거의 같은 악습이었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의 내게 더러 오기를 금하지 말라 하고 하신 후로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린이를 존중하여 기쁨을 알고 따라서 어린이의 지위가 높아졌다.

실상 우리는 어린이를 아무 것도 모르고 철없다고 업수이 여기기보다 차라리 어린이의 순진성과 명랑성과 평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사랑하고 놀아주는

어차 할 것이니 진실로 어린이를 사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이나 사회가 어린이를 무시하고 학대하면 가장 야만의 욕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 국가사회의 최잔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가 열린 사회에서는 아동학대방지를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네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각오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제도시설이 빈약한 것은 유난할 일이다.

東獨福音教會抗爭聲明

共産政府教會彈壓開始

四十六名의 指導者投獄

북조선의 국제적세대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행된 크리스찬리티 엔드 크라이시스誌(라인홀드 니버의 주간하는 잡지)는 동부 독일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조선정령지구회 부로사 함동교회 지도자 46명이 기독교 관련자를 해표로 당하며 투옥되었다. 부로사 함동교회는 이일에 대하여 동부 독일정부당국에 정식 항의를 제출하고 교회회의에서는 강경한 연사로써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타협할 가망성은 전연 없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동부독일에서는 반종교운동이 강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싸울 수 밖에 없다」는 때가 왔다 교회는 이 이상 권리를 침해할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부독일 교회사정은 극도로 긴박하여져서 남북교회는 공산정권의 압박에 반항하여야 한다고 감동회의와 북음교회회의가 공동 성명을 발표 하였다 동회의의 의장은 베딩(柏林)의 오토! 디베리우스트 감독이었는데 2일간 회의의 의제(議題)는 동부독일의

반종교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부로사 함동교회는 1947년에 여섯교파가 합동한 교단인 데 회원은 140만명 이상을 포용하고 독일복음교회에 가입되어 있다. 그 회에서는 항쟁성명(抗爭聲明)과 아울러 투옥된 46명의 지도자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회장학진상 등을 다루고 같이 발표 하였다

國連軍側提案에 抗議

韓國政府政策과 相反

한국에서는 정부를 비롯하여 군관인 전체가 다시 회전의담 반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금번 회담이 재개될 때 휴전문제에 경고를 반복하였으나 지난 25일에는 극도로 달하였다고 전한다. 클락국련군사령관은 두시간이나 이승만대통령과 회담을 하였는데 소식 등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련군측에 대하여 진로(震怒)를 하였다 고도 보도하였다. 그 이유는 휴전회담이 일주일이나 쉬어서 재개된다는데 한국측이 용인 못할 새로운 내용의 문제를 국련군이 공산측에 제안하였다는 것에 있었다

이유는 두가지로 국련군의 3

分之二의 병력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측 회담대표에게는 사전 연락은 묘사하고 회담에 떠나갈 한시간전에 응고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측을 고이로 이날 회의에 미고려하려는 (보이프트) 국련군측의 신제안을 싸고 또는 계획적 행위라 고까지 한국정부측은 분개한다 사실 그날 휴전회담에는 회대표가 출석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비밀회담이었다 한국정부는 25, 26일은 대단히 감정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승만대통령은 휴전회담을 거부하여 반대하였고 현상대로의 남북분할 휴전은 허용의 가치가 없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

一 國連軍은 北朝鮮에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二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三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四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五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六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七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八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九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十 北朝鮮은 國連軍의 兵隊를 派兵한 事에 對하여 抗議한다.

지정월(四月)二十七日字로 暫下에
上上位에 있고 우리가 자당하는
所以라 그러나 副當時時調民
正書에 『사람이』를 『사람』라
고 示示한例다 이른바 正字
쓰기에 어려운 舊式 그대로
廢止하고 간단한 舊式 그대로
活用하려는 命令이었다.

이에對하야 文敎當局은 委員
會를 두어 研究하기를
주장하고 全國文化團體聯合會
에서는 反對의 烽火를 들고일
어났다

무엇文字는 思想을 表現하는
手段로서 社會生活上의 實情
속으로서 行되지는 것이 本質이다
그러므로 科學의 精密한 理
論에 立脚하여 어떠한 思想이나
소리나 正正確確히 表現할수 있는
普遍性이 있어야 할것으로 學
活實用하게 그칠을 모르고 發展
하는 恒久性이 基本要件이 된다
우리의 한글은 이三大要件을 具
足하고 있음으로 文字中에도 가
매를 보아서 國道發展을 위하
여 國軍으로 하여금 學問과
지적하고 하고 六月一日
을 기하여 二十五세까지의 남
자로 國民학교 程度인 이외의
성년은 전부 소집입대 하게하
고하고 한다.

국립국어의 發展은 비밀리
에 부첫기 때문에 명백할수
는 없으나 國庫으로 생각할수 있
는 점은 국립국어에 పో되어
있는 북한(공산군) 동포가 다
시는 公산치하에 갈 의사조차
없다고 하는 形제들을 公산족
유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公산족에 치우친 채코 公山드

이 강하기때문에 가정의 부모
나 형제간에 어린이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무언중에 공
그들을 감화하고 선악간에 이
를주는 동기가 되는것이다.
아직 배지와 같은 公산족같은
이런이를 더럽혀주고 公산족
책임은 거의 전부가 부모와
형제 누이와 교사와 교우와
이웃사람에게 있는것이다. 아직
순진한 어린이는 부지불식
간에 公산의 公산에 公산에서
거짓말과 公산을 하게되고 자
라는 公산에 公산하고 公산을
하는 公산을 배우는것은 다
어른들의 公산으로 가르친것
이 아니라 그런고로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범죄케 하는
자는 돌배를 목에매고 公산에

신히 알수있는것은 太陽같이
 밝은 한글의 公산作用에 公산지
 않고 한글자체가 아니었다는것
을 公산해아한다
 公산과 公산은 公산으로 公산
 公산의 公산을 公산하지 않고 公산
 公산에 公산하라는 公산道德律
에 있어서도 公산될수있을것이
어늘 公산하며 公산發展하는 文

本國新聞論調

한글의發展을멈추는것

民主新聞社說

正當한努力이요 또한 公산일것이
다 지금세대에 살고있는 우리
로서는 解放이후에 公산教育을
받은층이나 또는 公산民族文化
를 사모하고 사당해서 公산力하
고 公산사람의 公산은 公산
 公산以後의 公산된 公산 한글
 公산을 公산요 公산하는 公산이다
그들의 公산일지언정 남이 간

와 소위 公산이라는 公산병정
들의 公산하에 公산하여 公산
 公산하는 公산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公산民族을 公산생지육
에 죽이라고 보내는것과 公산한
지기 때문에 公산은 公산한다
이런 公산한 公산을 公산족에

細菌戰非難은虛偽宣傳

歸還傷病捕虜의證言

아메리카 公산성은 公산公산
군들이 公산공포로들에게 公산
주의를 公산하기 위하여 公산
들을 公산하였다는 것과 公산

파지는것이 나으리라 하었다.
사람이 어려서 한번 公산의
 公산에 公산하고 公산에서
 公산하는 公산이 그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일생을 公산
는것이니 우리부모님과 公산
의 公산하는 公산하러서 公산
이 악마의 公산 손에 公산
 公산지않기를 公산하러서 公산
가 스스로 추하고 악한 公산
보이지 않게 公산 노력하여야
되는 公산 같은 그들의 公산에
 公산의 公산이 公산사지지도
온갖 주의와 公산의를 다할것이
다 그리하여 어린이 때부터
 公산하고 바른사람이 되어야
우리사회와 우리나라에 公산으로
허망이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東京教會

東京교회에서는 公산강림주일
에 오전十一時부터 낮 公산
드렸는데 公산목사의 『성령의
 公산』(사도행전二章一三)라
는 公산이 있었다. 또 오후에
는 公산회가 있었다. 지난十四
는 公산일에 公산한 公산은
 公산六十二명 여자 公산三
이었고 公산한 公산은 公산五三八五
이었다.

利得이 무엇인가? 역시로 公산
되 公산科學의 公산은 公산하고
 公산있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모든事物의 公산체를 公산하지
 못하는 公산일것이다 公산
의 公산을 公산하러서 公산
 公산의 公산을 公산하러서 公산
 公산의 公산을 公산하러서 公산

是의 公산은 公산生活의 公산
 公산은 公산生活의 公산
 公산은 公산生活의 公산
 公산은 公산生活의 公산
 公산은 公산生活의 公산
 公산은 公산生活의 公산

는 자기비행기가 公산지(地
 公산)에 公산비행기를 公산하였다
고 公산하였는데 그 公산(中
 公산)은 公산한 公산을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이 말이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하 公산회에서는 公산四日主日
 公산성신강림절과 公산교회
 公산二十四주년 公산에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下關教會

下關교회에서는 公산四日主日
 公산성신강림절과 公산교회
 公산二十四주년 公산에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미려주는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는 자기비행기가 公산지(地
 公산)에 公산비행기를 公산하였다
고 公산하였는데 그 公산(中
 公산)은 公산한 公산을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이 말이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하 公산회에서는 公산四日主日
 公산성신강림절과 公산교회
 公산二十四주년 公산에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下關교회에서는 公산四日主日
 公산성신강림절과 公산교회
 公산二十四주년 公산에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下關교회에서는 公산四日主日
 公산성신강림절과 公산교회
 公산二十四주년 公산에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이런의
 公산의 公산
 公산의 公산
 公산의 公산
 公산의 公산
 公산의 公산
 公산의 公산

는 자기비행기가 公산지(地
 公산)에 公산비행기를 公산하였다
고 公산하였는데 그 公산(中
 公산)은 公산한 公산을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이 말이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公산한가?

하 公산회에서는 公산四日主日
 公산성신강림절과 公산교회
 公산二十四주년 公산에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下關교회에서는 公산四日主日
 公산성신강림절과 公산교회
 公산二十四주년 公산에 公산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公산한

群山社會事業館의偉業

無產階級の殿堂으로發展

朴順任女史의新禮의結實

六、二五사면이 일어나자
처에서 무참하게 희생된 동포
들이 수없이 많음을 따라 그
자기 고아들이 많이 생겼으니
그들을 수유하여 기르는 사업
은 가장 긴급한 일이고 지금
이 시절은 얼마든지 부족한
현황이다.

그리하여 전국에 사회부 지
역인 국립기관 이외에 사설기관
도 많이 있는 가운데 이제 특
히 전북 군산(群山)에 박순
임(朴順任) 여사의 노력으로
창설되고 경영해가는「군산기독교
사회관」을 소개하기로 한다.

「상생육아원」이란 이름으로
제자년에 설립된 후다가가 자
년 설립부터 세로 발전한 이
사회관은 반년 뒤 작년十二月



사진은 《군산사회관에 수유된 노유를》

중 한 사람과 결혼하여 육사
의 부인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아이의 어머니의 몸이 되었으
나 그는 전부터 사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개성과 원주
동지에서 여자관에서 일하였고
이방면에 연구를 힘써 왔다.
교회에 종사하는 남편은 일본
시대 전쟁 때 바로 해방전에
순교를 당한 후에 개성에서
수이나 가까운 시모와 어린것
을 이끌고 여학교와 여기저기
에 취직하여 고생하고 지내는
차에 사변당시에 피휘군이 개
성에 묻혀 침입하자 부득이
성에서 어린것들을 개성에 두
고 노모와 아들하나만 데리고 일
고 큰 아들을 피하여 서울로 왔다

차츰 남편이 여의치니 우리
의 일면은 한 번씩 열면 하기
수양의 일이 생과 됩니다. 더
욱히 금년에는 봄에 각 지방
단위 수양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기수양의는 의회가 있고 활
기가 있을것을 기대 합니다.

그러나 복음선언 제七十八호
에 의하면 금년에는 총회산하
에 통일수양회가 개최되고 구별한
종교수양회와 교회로 구별한
연구수양회와 학회들은 회의
필요 현상 되었을것이다. 우
리의 불온 폐해한 기독교총회
속한 청년단체는 하지마
는 독자성을 가져야 할 청년들
의 단체로서 명확한 의의조화
가 되지 않으면 세우지 못하고
의할수 없는 지나가는 것이
제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남노소와 함께 도의 불기

充實한修養會를期함

청년단체 단속 수양회 그야말로
충실한 학 자지방 청년단체
가 합적할수 있는 수양회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총회를 무시하거나
한방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대한 기독교총회의 산하에 산재하
고 있는 청년들의 청년으로서

宣教師四人

共産軍

사건 전 사변당시에 개성의
있다가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있는 김희교의 선교사 전
사(宣教師) 다이어양스미
트와 김호부 로이서와 구
세균 로드정령 오인은 한동안
그들을 몰래 염위하였으나
이런 로로로환하는 기회에

滲透하는基靑의勢力

世界Y 폴 린버드

세계각국을 도라 보던 폴 린
버드(新教)의 나라에서
는 기독교청년운동도 크게 발
달한 사실을 볼수있다. 예를
들자면 독일 화란 스칸디나비
아 및 마 카나다 오스트랄리
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교회청
년운동과 학생의 구별할수 없
는 정도로 기독교청년회운동이
발달되고있다. 오스트랄리아
전체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는
반듯이 기독교청년회가 조직되
어 있었다.

기독교복음의 역사가 전지못
한나라와 따라서 그 복음세력

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미약한
대로 기독교청년(YMCA)운
동의 활동발달할 여지가 많았
다. 예를 들면 아세아와 중동
(中東) 각지인데 인도같은데는
현재도 YMCA조직이 백만이
상이 있으나 그 대부분이 남
인도지방 일부에 치우치고 동
쪽 파키스탄에는 하나도 없는
현상이다.

他宗教와의關係
기독교청년운동의 발전에 있
어서 어느나라의 있어서나 그
나라에서 어떤 종교가 우세하
나한데 관계가 많다 불교(佛

敎)가 왕성한 불연 빌미이며
국중에서는 전 인구의 겨우
二퍼센트정도만 그리스도신자
일뿐이다. 빌미는 수도(首都)
방구 이외에는 그보다 훨씬한
YMCA가 없고 미국도 그
수도에 있을뿐으로 지방에는
인재도 문제거니와 경제력도
미치지 못할 현상이 있다. 상가
품에는 시내에 두군데 YMCA
가 있고 말레이반도에 도
十년전 부터 두곳에 있어서
회원을 활동하고 있다.

일반 종교관계도 각나라 사
정에 따라 다른 점이다. 이
오는十二月 불교의 세력이
강한나라 기독교청년회 대표를
이 세계동맹의 초청으로 함께
모혀 국제적인 토의가 있을것
이다.

佛敎의종敎에 있어서도 인
도네시아방면과 말레이 일부
에는 회교(回敎)의 세력
이 강한데 인도네시아에서는
YMCA를 조직하였다. 현재
세계동맹간사 한사탈과 명에간
사(宣教師로마쓰)가 있다.
인구는 동남아에서서는 비
범의 다음으로 되어있다. 크리
스찬은 二五萬에 달하는데
씨버에 그 중심세력이 있다
혹은 시민의 八할이 크리스찬
인 곳도 있다.

比律賓은佛敎가 兩等 아메리
카와 같이 푸리를 받고있으나
스페인인敎와같은 완고한 캐를
력정신에 사는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의 원만한 도시에는 YM
CA가 설립되어 있다 어떤

나이다. 우리 수양회는 각 처에
호위로서 혼자서 싸우던 일군
들이 전제적으로 한자리에 물
어서 전제전선의 생생한 경험
으로 교감하며 신앙과 지식을
다하여 전제전선을 강력히 재
편성하는 몸임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아닐가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각자
가 전제전선에 배치된 십자군
이 많이 있고 그 인제인가 별
서 부상병으로 생각만 전선에
있고 몸은 전장에 있는 삼이
병정같은 자가 많을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기가
없고 개척은 고사하고 활동현
황보고도 없는 것입니다. 휴양
회를 수양회로 재인식 합니다.
물론 첫째를 분명히 깨달
으면 따라서 이러한 수양회내

인물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또 무산아동을 위한 야학과
부인들을 위하여 요리와 양재
성경 등 강습을 할 계획을 진
행중이라고 한다.

無事歸國 拉致에서

난 주일에 가족과 친구들의
환영리에 뉴욕까지 무사 귀국
하였다고 한다.

大韓體育會創立總會

이승만대통령을 총재로한 대
한체육회의 올림피 선수들은
지금 남양방면에 가서 원정중
이다

나가고 있다 그리스도교에 관
한 것은 입회한 후에 교육하
여 가려는 것이 각국의 이견들
이었다 인도에서는 두달씩 훈
련기간을 두었고 대만은 七월
이상이 기독교인되기 때문에
문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캐들
리크 회립정교와도 조화가 되
어져 있었다 세계동맹에서는
폴랜드 출신 캐들릭간사도
있다 독일에서는 이 점에 약
간 곤란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YMCA 지도자
와 멤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클립이라 할지라도 만
사가 곤란없이 수조로 진행되리
라고 동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
에 처하여 최선을 다할뿐이다
고 말하였다.

(新約) 야고보인서
(講解)
一本書의 著者는 年代의 愛信人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주에
수의 아우 야곱보였다 그
는 예루살렘교회에서 기독교
의 지침을 받으며 교회유치
에 힘써서 일한에게는 의인
이라 부를을 받고있다가 나
중에는 순교의 죽음을 마친
사람이다. 이 편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각지에 호도전
을하던 기독교자들에게 기록하여
보낸 것이다. 연대의 있어서
는 여러가지 설명이 많으나
기원 六十年에서 七十年경의
것으로라고 추측한다.
二本書의 特徵이 편지는 여러

삼가 붙여가다가 방금은 마닐라
에서 싸우고있는 중인데 五월
하순경 동경에 들리게된다이
교회에 일본에 있는 우리 체
육회에서는 긴급히 파견의 기
구를 싸들고 하여 본국 대한체육
회를 회의로 긴급한 언약을 취할
계획으로 새로 재일 대한체육
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지난 五월二十三日(主體) 오
후二시에 도내 우리 YMCA 회
관에 사제의유지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이범재씨
사회로 개회하여 임시의장으로
민단 부단장 김병욱씨가 피선
되여 회를 조직하니 회장은

首都郊外에 少年部落設置 亞米利加軍隊의 努力

아메리카 제5연대 전투부대
의 장병들은 한국전제아동들을
한곳에 모아 서울근방에 『보이
스타운』 少年部落』을 건설하
는 사업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금을 모았다 이 사업은
이 전투부대장병들이 한국전선
에서 전사한 전우(戰友)들을
위한 기림사업의 하나로 생
각한 것으로 六月까지 百二十
名을 수용하고 十一月까지는
二百名의 고아들을 수용할 예
정으로 국련 한국구제본부에서
자재(資材)를 얻어서 건물을
세우고 있다. 이 소년부락은
아메리카 네부라스카州에 있는
『아메리카 소년부락』을 모방
하여 설계한 것이다.

二百七十萬 킬로의 衣類
위신은 기독교연맹에서는 한국
전제민에게 이류(衣類)를 구
제품으로 보내기 위하여 五月
二十四일 주일부터 전국적으로
호별방문을 개시하리라 한다.
이 운동은 二百七十萬 킬로를
최저 목표로 하는 전국구제운
동의 일부라 한다
敎會음악講習會
일본기독교단 찬송가위원회에
서는 전국기독교 학교 음악과
교사와 교회찬양대 지도자 등
은 찬양대원들을 위하여 오는
八月三일부터 四일간 동경신학
대학에서 기독교음악강습회를
개회 하리라 한다 강사는 교
회 일류 종교음악가들이다.

가 지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비추고 대담히
적절한 그리스도교도들을 기
독한 것이다. 그러나 단조무미
한 교훈집(敎訓集)은 아니
고 교의 더듬으면 그 기초
에 순전한 복음전신앙이 있
음을 볼수있는 것이다. 본래
이 편지는 교의(敎義)를
해설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록하는 전
언 단 발면을 전개하고 있
으나 복음신앙의 결과로서
나는 것으로 본 점은 이것
이 오히려 신하나님의 복사다
三本書의 目的이 편지의 목
적은 환란 중에 있는 그리
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신앙에 도취하여 행
위를 무시하는 자에게 경고
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
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가 이
되라 하고 반복 역설한다.
四本書의 概略이 야고보는 아
편지에 있어서 우선 환란의
의외와 이에 처하는 방도를
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종의 생활
실천도덕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르치고 이같은 행위를 나
타내는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라고 역설하였다.
五本書의 內容分解
一 一
二 시련에 처하는 방도 一 2 18
三 시련에 줄기다 一 2 14
四 시련을 구하라 一 5 18
五 시련의 결과 一 9 11
六 신앙생활의 요점 一 19 14
七 선을 행하라 一 19 27
八 권견을 갖지 말라 二 1 13
九 신앙과 행위 二 14 26
十 허를 제하라 三 1 12
十一 지혜를 구하라 三 13 18
十二 담내지 말라 四 1 10
十三 교만치 말라 四 11 12
十四 각의한 권고 五 1 20
十五 불의한 재물과 교만 五 1 6
十六 참고 견대라 五 7 11
十七 맹서하지 말라 五 12 1
十八 병자들을 위하리라 五 13 17
十九 형제들 구제하라 五 19 20

어린이의 마음 전영택

講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실 때에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하신 것은 무식한 어부와 농부같은 비교적 순진한 사람들이었고 그보다도 천진스러운 어린아이였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마치 천국의 천주를 당위에서 만났듯 한 반가운 심정으로 대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반기시는 어린아이를 더리고 오는 어머니들을 도리어 속에 많은 더러운 죄로 땀을 흘리고 있는 자가 배척해 보내려 할 때에 예수께서 본이 나시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실상은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자가 도리어 아를 담고 깨끗한 사람을 배척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에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운데 『의내서어스』라는 교부는 후일에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가 마침내 깨끗하고 훌륭한 소교자가 되었다고 한다. 예수의 축복을 받아서 세대에서 복을 받기보다 하늘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첫째로 어린아이는 진실을 하고 참되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보는 사람마다 모두 꾸미고 거짓 착한 체하고 간사한데 역증이 나시고 본이 나셨다. 이것은 바리새교인의 위선을 배 하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어린이는 솔직하고 참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어린이는 숨길 것 없고 꾸미는 것도 없이 마음의 착한 체가 공중의 종달새같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트면 나쁘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예수살렘의 어린아이는 그때의 세력이 있는 이와 높은 이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데도 기뻐없이 호사를 부르고 환영하였다.

(마태廿一章十五十六)

둘째로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고 내 것을 내놓아 남을 주려는 마음이 있다. 세상이 싸우고 요란한 것은 저마다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남을 생각지 않는 데서 일어나니 욕심과 이기주의는 가장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천명 무리를 먹이실 때에 그때 다섯

삼째로 어린아이는 평화를 좋아한다. 어린아이는 남을 미워할 줄을 모른다. 남을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세상을 화하여 지옥을 만드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움직일 때에 남을 미워하는 것을 옮기고 유 하고 저주하는 것이니 미워하는 것은 곧 악마의 마음이다.

예를 들면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 하려 죽일려고 하는데 그아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가 품 위협한 지경까지 구해준 일이 있는 데 이 요나단은 비록 장성한 사람이지만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다. 물스도미의 유명한 야기가운데 두 어린아이가 천 진스러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들의 큰 싸움을 보고 그 어머니들의 큰 싸움을 이겨서 서로 때리면서 몹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은 다시 붙어서 재미있게 놀고 있다는 것이 있다 (지난호에 어린이에 대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것이 어린이 마음이다 부모가 싸운다고 부모의 대적이라고 되어놓고 미워하는 것은 벌써 세상에 물들고 사나이의 마음의 마음이다. 세상 사람의 마음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인 생활

(1) 그 개인이 사회성이 있는가? 이것은 소위 사회가라는 나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회성이란 것은 온순하고 남의 말 잘 듣고 속된 재간이 없는 사람 이 도리어 제일 사회적이라는 경우에 쓰는 그런 의미의 사회성을 말한다. 각 사람은 고도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각 자는 건설적이어야 하며 조력해야 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고를에 협력하는 면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 하여 그 개인을 잃고 사회에 전혀 소멸하여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너무 수직어하고 또 파만한

어린아이는 아직도 마음의 순진하고 욕심이 없어 평화를 좋아하거나 그 마음에 악마의 유혹을 받고 죄악의 물이 들어 서 점점 거저되고 욕심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과연 슬픈 일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것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골508) 한 것은 유 히 어린아이를 배척하여 대하며 경

傳道欄 행동

프란스 철학자 『볼테어』는 『행복은 한곳 밖에 지나지 못 한다』 그리고 고통은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의 이론이 프란스 혁명의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인물과 사상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또 『무식한 어부마위 열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가 수립되었으나 나는 한 프란스 사람으로 그것을 파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세계에 보이며』 하고 호언장담한 것도 그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교가 파괴될 당하였는가

그가 죽은지 二十五년뒤에 그가 살은 집은 제네바 성서



教會學校 教師講座

教授結果의測定

魯安理

(3) 자기 고도의 기회에 합심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교회에 파벌 도당 불화등이 생겨서 서로 분렬하여 말 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하필 성서에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작은 교단에 있어서도 그 중에는 소극적인 분자가 있어서 남의 결점을 들추고 방해하고 비평만을 일삼는 일이 없지 않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때 혹은 열려추임을 받을 때 혹은 우물거리는 성품이 있을 때에 무리에 들지 않고 혼자 행동하는 때가 있기 십다. 또

의견 충돌로 인하여 성내고 떠러져 가는 수도 있다. 여러 본의 고들은 이런 형편을 잘 하고 있는가?

(4) 고도의 공동 활동을 할 때에 클라쓰의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으로 고쳐지 않고 그 의식을 전 세계 전 체에 까지 확장 심화하고 있는가? 학급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동년 국가 세계까지 확장하려면 클라쓰의 디쓰전순 클라쓰의 관심 기획 그리고 도 평화 사업 선교사업 금주 운동등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살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인 생활

(1) 그 개인이 사회성이 있는가? 이것은 소위 사회가라는 나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회성이란 것은 온순하고 남의 말 잘 듣고 속된 재간이 없는 사람 이 도리어 제일 사회적이라는 경우에 쓰는 그런 의미의 사회성을 말한다. 각 사람은 고도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각 자는 건설적이어야 하며 조력해야 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고를에 협력하는 면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 하여 그 개인을 잃고 사회에 전혀 소멸하여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너무 수직어하고 또 파만한

어린아이라도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들어가자 이것이 교정되어 남들과 기쁘게 놀게 된다. 어른이면 스스로 이런 단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교회생활을 통하여 좋은 의미의 사회성을 길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남을 사랑하는 것이니 마루어 말해도 좋은 것이다

(2) 강한 개인적 능력

우리가 강한 개인적 능력을 가지는 것은 결코 사회성을 가 지는 일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두가지는 서로 보충하는 성격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 려 서부터 자기 손으로 옷을 입 고 장난감을 관리하고 또 자 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면이 양성 되어야 한다. 여덟살이 되어도 아직 애기와 다를없는 어리둥은 아이도 있고 록 잘

정말 할수있다.
어떤이는 조금이라도 거짓말
이나 욕설 같은 나쁜것은 마귀
의 일로 알고 모양도 내지말
고 멀리하여야 할것이다. 부로
고 묘사는 귀여운 어린이가
마귀의 자식이 되지않기를 위
하여 힘써 주의하여야 될것이
다. 특히나 자신이 좋지 못한
본을 보여설 마귀의 역할을
하지않기를 힘써 할수있는대
로 그들의 눈앞에 주예수의
형상을 보여줄만한 애도와 해
탈을 가질수있는 경건하고 아
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것이다

편견과 인가

정회에서 매수하여 정교가 되
었다. 그리고 그가 사후하는
인생기는 성경을 읽는다는데
쓰게 되었다.

그것은 고사하고 그가 말한
대로 해복은 과연 공에 지나
지 못할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인생은 진실로 가련하고 실망
한 것일것이다.

그가 배척하고 부정(否定)
한것은 물론 그리스도요 자체
가 아니라 캐슬리의 신앙을
부인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
리고 그가 해복까지 부정한것
은 진실로 통렬한 한 일이다

그가 부인한 해복이란것은
물론 세상의 현실적인 해복을
말하는것이 있었지만 그는 그가

는 나이면서 독립심이 강하고
재주가 있고 자기의 힘과 자
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
이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소위
조숙하다는것과는 다른것이다.

이런 능력은 여러가지로 나
타난다. 예컨대 한 문제를 가
지고 연단에 나서서 연설을
하며 동시에 혹은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준비하는것 같은것
이다. 원고하기만 하면 지혜있
은 줄로 아는것은 잘못이다.

자기의 혹은 타인의 권리를
옹호기 위하여 일어나며 또
그난 중에서도 처음부터 관철
하며 용기를 가지고 앞서서
지도하며 새 사업을 착수하며
기지(機智)있게 거동하는것은

모두다 강한 개인적 능력의
발로라 하겠다.

발로라 하겠다.

香氣 참평 和의 주인

남의의 알렌전과 달리 두나
타에서는 경제선 문제로 오랜
동안 분쟁이 있었다. 이 두나
라의 분쟁은 점점 심해져서
방금 전쟁이 터지게 되었다.

그런데 1900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알렌전과 어떤 목사
한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사람 모든나라가 서로
사랑으로 맺어져야 한다고
사람으로 맺어져야 한다고
사람으로 맺어져야 한다고
사람으로 맺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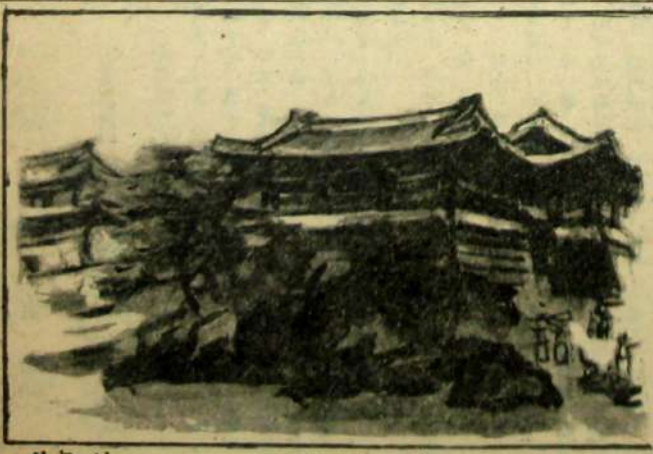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平壤
長城一面清水
大野東頭點點山
이라는 뜻이
있으니 생기있
어 솟고있을
느끼는 것이다.

韓國美

古都의 片模 (一)
남(南) (高句麗) (高句麗)
의 도읍이었던 평양은
그후 2千年間 서한(西漢)의
중진(中津)으로서 한국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역사적인 문화는 산수도 아
름다운 평야도 있거니와 대동강
과 모란봉을 비롯한 평양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다시
여물 좋은 곳(水都)이라고
부르는 평양은 그 풍광(風光)
의 아름다움만큼 그 풍광(風光)
의 아름다움만큼 그 풍광(風光)
의 아름다움만큼 그 풍광(風光)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때서 결국 살기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말은 말파악이라는것도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그리고 다시 자기나라에

自己再認識이緊要 敎界指導者에게告함

카나다宣敎師과우웬

이 글은 제일 대한기독교총회에 파견된 카나다 장로회 선교사 파우웬 목사께서 기독교 청년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의 반성과 지도자 자신의 사명 기준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한 의의있는 연설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목사나 혹은 신도로서 모든 사명을 우리 주 앞에 인도하고 복종시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몇가지 지도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를 배우라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은 예수께서는 그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였는가 그 모범을 고찰(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거만, 쾰은 청년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 소유를 버리고 자기에게 그 전 생애를 바치라고 명하였다. 요한 복음서 13장 35:14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기장은 배에서 안드레를 부르셨다. 그 후에 안드레는 바다가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라

青年을理解하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들은 그 인도하려고 하는

청년의 입장을 연구함으로써 청년들의 생활과 문제에 바로 정중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제(控制)하지 않고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사함을 알고 자기의 생 활을 재우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청년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대한 인격적인 복종이 요구된다. 주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전적인 헌신이 가장 요긴한 것이다. 우리

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의 생활을 여러가지 방면에서 단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 자신도 청년이었다. 그는 부자인 청년을 심히 동경하였다. (九二六:二六) 그러나 그는 자기들 따르는 자에게 모든 최선을 요구하였다. 그는 자기들 따르는 자에게 순결과 위험과 죽음에서 자유인 길을 약속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청년 단체의 지도자는 주 그리스도께 대한 청년의 완전한 충성과 헌신만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외에는 없다.

人格的接觸必要

詩

작은 일과 큰 일

어린 날에

바닷가에 조약돌 송충
밤하늘에 별 송충
마음 마음 별 송충
눈은 반짝반짝 무얼 보노
꼭진 조여구 저마다
무슨 운명을 타고났느냐
×
방그레 웃는 작은 얼굴들
팽그레도 고운 아가야 아가
반짝 왔다가는 눈 한쌍이라
물위에 떠다가는 물거품
×
땅에야 있건 말건 알건 말건
어미도 공대입다 하나마나
고운 무지개 다리도 건너
창창 아름다운 동산에
심고 가꾸고 아끼시나니
하늘에 달린 한복숭아기는

한글 표 실 (제8 시간)

당 당 張 曉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유효한입니다. (이 「표실」 제1시간 참조) 이것을 어떤 이는 「신철자법」이라 하여 한의견이나 주장으로 여기고, 자기는 어떠한 「구철자법」에 능숙한 것처럼 생각하나, 「통일안」은 재래에 통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요, 그러한 이가 도리어 재래의 음운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말고라도 옥편(玉篇)에 달린 한자음조차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적는 것은 거기에 친구 아무런 법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구 적는 것 보다는 도리어 통일안의 규정이 재래의 관습에 가파울 것입니다. 통일안은 재래의 관습을 도대로 하여 거기에 가감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안의 큰 의의는 낱말의 문법상의 모든 부분을 구별하여 일정하게 씌우므로 우리말이 뜻글자처럼 쓰이게 한 것이요, 또한 사전에 낱말을 실을 수 있는 어휘학(語彙學)적 정리 공사가 된 것이어서, 인제는 사전으로 하여금 우리말의 맞춤법을, 정서법을 길이 지켜 주게 한 것입니다.

통일안의 드러난 특징은 1. 말발(語源)을 밝히어 적음으로, 우리말이 뜻글자처럼 쓰이게 함.

본지상에 이 「한글 표실」의 난이 설치된 이래, 각방면으로부터 독자 여러분의 한글의 여러가지의 불음이 생도(發聲)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 이제 까지와 같은 정도보다도 더 쉬운 첫걸음부터 강좌로 연재해 달라는 요청도 있던 바, 이 번에 조길 두 목사 님께로서의 그러한 편지도 받고 앞으로는 당분간 맞춤법의 첫걸음부터 강좌로 연재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각 교회의 청년회나 부인회에서는 이 신문을 이용하여 널리 한글을 보급시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의 맞춤법

맞춤법(綴字法)이란 무엇인가? 맞춤법이란 글자를 맞추어서 쓰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나라) 말이든지 그 말을 글로 적는 적서법(正書法, 正字法)이 서 있지 않으면, 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자(漢字)는 한자로서의 엄연한 조직이 있고, 영, 불, 독어(英仏獨語) 등 서양의 말도 각각 그 말의 적서법이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복잡함에 비하여 우리말의 맞춤법은 실제의 말을 말소리대로 적는, 가장 이치에 맞고, 가장 쉬운 것이지만은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또는 너무 쉬

또한 우리들은 세세 요한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요3:30)는 말씀대로 겸손하여야 한다 더 열심이 공부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남을 자기 보다 더 크게 할려고 애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며 대중 속에서 표적으로 삼고 말 할 수 있도록 각 청년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는 열두사 람을 택하여 천히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는 각 제자의 후 령한 달렌트와 재능이 무엇이 었다는 것을 잘 알으셨다. 그 는 영생의 문제를 가르쳤다. 제자들은 예수와 같이 살며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았다. 사람들을 고치시며 기 도하며 도시와 촌에 도라다니 며 말씀을 전하는 데 동행하였 다. 그는 자기들 따르는 사람 들에게 경고하기도 하였다 (누 九五七-六二) 제자들은 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 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 의 신앙고백은 세상의 구주에 관한 깨달음이 점점 더하여짐 을 가르친다. 지도자인 그리스 도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처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약하 였으나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생명을 바치 게 되었다.

은 천주였다. 그는 서둘 재벌 의 하나로 저 저가운데서 태 났으나 조종도 그 집안 세 계를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법으로 사업을 해보려는 의 식한 젊은이였다. 해방후의 큰 인건공장을 하나 손에 붙여가 지고 인쇄소도 해보고 한 편으 도 무역에도 손을 뻗어보고 장 지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 다 다 실패를 하고 요새는 한 봉헌이 되었다 싶어하여 마 호를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호에게는 의의가지도 많은 도 음이 되었다. 그는 영이론 잘 해서 대산관에도 올라가고 국 방 부에도 천수가 있었어 호호의 사업에는 없지 못할 후원자이었 다. 물론 용수가 호호의 도움 도 받았다.

時代的要求하는人物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들은 예수를 구주로서 분명히 신앙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매일 예수에게서 배 우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배 적은 세포(細胞)와 같은 우리들 인도하여 우리와 합하 활동하며 그들을 충실히 가르

간신이 이렇게 말을 하고 혼들거리는 호호의 몸을 붙들 어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가가 히 갈수록 더 몹시 뒤치는 술 냄새에 흠뻑 한거름 물러 섰다가 물을 갖다 줄려고 들 어섰다.

新刊紹介 聖書 神田 盾夫 譯 C.H.D. 卜原 著 이 책은 CN독트박사가 권 부리지대학 신학부에 주최한 공개강연에서 강의한것을 수정 한 것인데 누구나 알기쉽게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을 읽으 면 표제의 부에(副題)에 기 록된바와 같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연구방법과 구약성경 에 관한 개략적 내용과 의미 와 역사적 배경등에 대하여 현대적의들 깊이 깨달을수 있고 위대한 신학자 독트박사 의 신학적 방향과 역사관등이 그속에 깊이 장겨진것을 알수 있게된다.

『아주머니 이거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집으로 간다는 것 을 부디부디 알고 왔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사람아 가긴 어떻 가 잔 말하고 어서 올라가...』 『여보 자리 자리 이층에 자리종해』 『아유 선생님 이제 어떤 가 서요 어서 올라가 좀으세요』 『명애는 바빠 이층으로 올라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내려오 고 뭐따라 호호는 용수를 끌 고 올라갔다.』

이 책은 CN독트박사가 권 부리지대학 신학부에 주최한 공개강연에서 강의한것을 수정 한 것인데 누구나 알기쉽게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을 읽으 면 표제의 부에(副題)에 기 록된바와 같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연구방법과 구약성경 에 관한 개략적 내용과 의미 와 역사적 배경등에 대하여 현대적의들 깊이 깨달을수 있고 위대한 신학자 독트박사 의 신학적 방향과 역사관등이 그속에 깊이 장겨진것을 알수 있게된다.

『참 이보게 용구 용구』 하면서 비물거리면서 밖으로 나간다 호호가 금방 그자리에 서 꼬구리질가 엉려가 되어서 명애는 고무신을 끌고 현관으 로 따라 나갔으나 호호는 어느새 골목으로 나가고 안보 인다.

성경연구라는 것은 혹 개인 의 영적요구와는 하등의 관계 없이 냉정한 것이 되고 마는 경향도 있으나 이 책은 읽는 자의 심정에 직접 호소하여

『아주머니 이거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집으로 간다는 것 을 부디부디 알고 왔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사람아 가긴 어떻 가 잔 말하고 어서 올라가...』 『여보 자리 자리 이층에 자리종해』 『아유 선생님 이제 어떤 가 서요 어서 올라가 좀으세요』 『명애는 바빠 이층으로 올라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내려오 고 뭐따라 호호는 용수를 끌 고 올라갔다.』

자외 심정에 직접 호소하여

『아주머니 이거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집으로 간다는 것 을 부디부디 알고 왔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사람아 가긴 어떻 가 잔 말하고 어서 올라가...』 『여보 자리 자리 이층에 자리종해』 『아유 선생님 이제 어떤 가 서요 어서 올라가 좀으세요』 『명애는 바빠 이층으로 올라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내려오 고 뭐따라 호호는 용수를 끌 고 올라갔다.』